

타인능해... '이웃사랑 공간'을 채워주세요

《他人能解》

‘사랑의 쌀·라면 나누기 예술의 거리 콘서트 아름다운 공간’
가수 이용호 주도...신계행·소리새 등 매주 금 4~7시 공연
4월 1일~연말 무대 옆 쌀·라면 비치...성금모금·후원 모임도

1776년 지어진 구례에 위치한 고택 ‘운조루’에는 특별한 쌀뒤주가 있다. 약 쌀 두 가마가 들어가는 쌀뒤주 뒤편엔 ‘타인능해(他人能解)’가 적혀있다. ‘누구나 능히 열 수 있다’는 뜻이다. 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와서 필요한 만큼 퍼가라는 의미다. 흉년, 보릿고개 마다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부담없이 쌀뒤주를 이용했고 운조루는 적선과 기부 대명사가 됐다.

약 250년이 지난 지금은 물질이 풍족한 시대다. 여유로운 삶을 누리지는 못해도 밥을 굶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현대에도 분명 끼니를 거르는 불우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가장 슬픈 일일 수도 있는 배고픔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 예술인들이 뭉쳤다.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공연을 펼치고 현대판 ‘타인능해(他人能解)’ 쌀뒤주를 광주시 동구 예술의거리에 만든다.

‘사랑의 쌀·라면 나누기 예술의 거리 콘서트 아름다운 공간’(이하 아름다운 공간) 행사가 다음달 1일 예술의거리 중앙무대에서 열린다.

올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7시 열리는 행사에는 광주, 서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인 약 25명이 참여한다. 명창 황연수, 가수 신계행, 소리새, 한승기, 바리톤 박영하, 김제선, 재즈 트리오 강운속밴드, 포크그룹 농성다리 등 소위 ‘명성’ 있는 다양한 장르 출연진이 돌아가며 공연할 예정이다.

행사 목적은 문화예술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도움이

손길을 유도하는 일이다.

공연 일정과는 별도로 15일부터는 무대 옆에 상점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간’을 설치한다. 공중전화부스 형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쌀과 라면을 비치한다. 행편이 어려운 굶주린 사람들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공연 중 성금모금함도 운영하고 후원 모임을 조직해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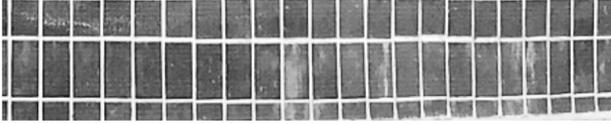
미술인들과 상가변영회도 동참한다. 미술인들은 관객들에게 무료로 개리커쳐·초상화를 그려준다. 상인들은 관객 참여마당 무대에 오를 시민들을 위해 상품으로 ‘식사교환권’, ‘커피시식권’ 등을 준비했다.

미술, 드론날리기 전문가 시연 등 풍성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이 행사는 이용호(53) 리컴미디어 대표가 기획했다. 가수이자 초당대 실용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지난 2014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예술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겨울 남루한 차림의 50대 남성이 예술의거리 길바닥에 놓인 배달음식점시를 들더니 남은 볶음밥을 먹는 모습을 봤다”며 ““아직도 배를 굶는 사람들이 있구나”하는 사실에 놀랐고 이를 돕기 위해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앞장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거리 공연을 통해 이웃을 도와보자는 의



가수 이용호씨가 기획한 ‘아름다운 공간’행사가 1일 동구 예술의거리 중앙무대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이씨가 매 주마다 진행하고 있는 거리 공연 모습. <리컴미디어 제공>

견을 지역 예술인들에게 들려주자 다들 흔쾌히 승낙하며 행사가 만들어졌다. 첫 행사인 만큼 아직 후원을 얻지 못해 당분간 이 대표가 사비를 털어 진행한다.

행사가 발전되면 동구청과 협의해 ‘아름다운 공간’을 각 주민센터 등으로 확장 설치할 예정이다.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등도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여수·순천에서도 공연을 펼치고 공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전 출연진이 참여하는 송년

음악회와 후원의 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열고 옴니버스 음반 제작도 구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곳간에 비치된 쌀을 아무나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광주시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이번 행사가 잘 진행돼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예술의거리도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465-03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 출신 나종입 시인 ‘어머니의 언어’ 펴내

어머니가 상징하는 의미는 많다. 생명, 포용, 희생, 감사 등...

그러나 작금에 어머니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은 이 뜻이 아닐까 싶다. 바로 ‘상생’이다. 서로를 내가 옳다고, 잘 낳다고 아우성치는 시대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을 향해 날선 언어와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라는 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순화되고 포용된다. 어머니의 힘이다.

‘어머니’와 ‘언어’라는 두 단어가 제목으로 결합된, 울림이 있는 시집이 출간됐다. 나주 출신 나종입 시인이 13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시집 ‘어머니의 언어’(작은 숲)는 ‘상생’이라는 주제의식을 명징하게 형상

화한다.

“어머니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다가/ ‘엔간이를 허제!’/ 어린 시절 우리 형제들 끼리 다들 때/ 항상 하시는 말씀/ ‘엔간이들 허제!’/ 아침에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으니/ 또 말씀하셨다/ ‘엔간이들 허제!’”

표제시 ‘어머니의 언어’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한 대상에게 던지는 어머니의 화법에 초점을 맞춘다. “엔간이들 허제!”는 포기도 아니고, 적대적 관계에 대한 투정도 아니다. 대상을 보듬어 안는, 그것이 무엇이든 순화시킬 수 있는 평화와 상생의 언어다.

또한 시집에는 노화도 옆의 작은 섬



도와 아시아의 변방 풍경을 토대로 삶의 변방을 노래하는 시들이 다수 담겨 있다. 시인에게 세상은 ‘꿈을 실어 보낸 바다’와 ‘뿌리 내리지 못한 삶의 사막’으로 다가온다.

해설을 쓴 조현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생각해 보면 넓도와 몽골의 사막만 변방이 아니다”면서 그림에도 시인의 육자배기에는 “서로를 보듬어 주는 상생의 언어, 어머니의 언어가 있다”고 평한다.

한편 나 시인은 월간 ‘한국시’로 등단했으며 현재 나주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백호문학회 회장, 교육문예창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복사진 공모전’ 개최

문화재청, 4월 11일까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한복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복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오는 4월 11일까지 진행되며, 1인당 응모작품 수는 제한이 없다. 사진(용량 10MB 이하, 확장자 JPG)을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2016hbphoto@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게재돼있다.

응모된 사진은 흥미, 구도, 포즈, 한복 맵시, 창작성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0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미국 뉴욕의 맨하탄 5번가에는 독자로 새로운 미술관이라는 뜻의 ‘노이에 갤러리’(Neue Gallery)가 있다. 건물 자체가 랜드마크인 주변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달리 너무 작아 그냥 지나치기 쉽다. 수년 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노이에 갤러리를 눈앞에 두고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지만 매년 관광객들이 ‘눈에 잘 띄지도 않은’ 노이에 갤러리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 오스트리아 출신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1907년 작)을 보기 위해서다.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여인의 모습은 관람

했고 8년간의 힘겨운 소송을 거쳐 지난 2006년 1월 16일 이 작품을 품에 안게 된다.

그로부터 5개월 후, ‘아델레 블로흐...’가 경제회사인 소더비 옥션에 ‘매물’로 나오자 국제 미술시장이 들쭉거렸다. 수많은 컬렉터의 치열한 배팅 끝에 당시 회화 부문 최고 거래가인 1억3500만달러(약 1540억 원)를 제시한 로널드 로더에게 낙찰됐다.

그는 세기의 명작을 전 세계인들이 언제든 감상할 수 있도록 뉴욕의 오래된 건물을 노이에 갤러리로 리모델링하고 클림트와 로더가문의 뿌리인 오스트리아 전문 미술

미국 ‘금수저’들이 존경받는 이유

객을 화면 속으로 빨아들일 만큼 강렬하다.

지난해 여름 나는 오랜만에 ‘그녀’와 재회하는 기회를 누렸다. ‘아델레 블로흐...’에 얽힌 실화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 ‘우먼 인 골드’(Woman in Gold)에서였다. 이 작품이 바다 건너 맨해튼에 ‘입성’하게 되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충실하게 재현했다.

영화에서 내가 주목한 건 내용도 내용이지만 감쪽 등장한 한 기업인이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글로벌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의 로널드 로더(72)회장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손을 거쳐 오스트리아 정부로 넘어간 외숙모의 초상화 ‘아델레 블로흐...’를 되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던 주인공 마리아 알트만 할머니에게 ‘솔깃한 제안’을 건넸다. 에스티로더에서 일류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부담할 테니 자신에게 작품을 판매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마리아 알트만은 그의 제안을 거절

관으로 문을 열었다.

세상 남의 나라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그들의 ‘통 큰’ 기부가 부러워서만이 아니다. 돈이 많긴 적긴, 불우한 이웃과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때문이다. 만약 에스티 로더가의 기부가 없었다면 ‘아델레 블로흐...’는 알트만가의 소장품으로만 남았을 것이기에.

최근 뉴욕에 거주하는 거부 51명이 뉴욕주지사와 주의회에 ‘상위 1%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월트 디즈니의 손녀 어비게일 디즈니, 록펠러 가문의 5세대 스티브 C. 록펠러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금수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뉴욕주의 빈곤 아동률이 50%가 넘고, 8만 명 이상이 노숙자로 지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뉴욕주에서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런 멋진 부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포털 ‘서점온(ON)’ 개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최근 지역서점 포털서비스인 ‘서점온(ON)’(www.booktown.or.kr)을 개설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교보문고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을 제외한 전국 76개 중대형 서점이 손잡고 개설한 이 사이트는 판매 정보관리시스템(POS) 연계 등을 통해 지역서점과 보유 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간단한 검색을 통해 자신이 찾는 책이 있는 가까운 서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출판사와도 제휴를 확대해 지역서점에 특화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범 운영을 거쳐 4월의 ‘문화가 있는 날’인 내달 27일 사이트를 정식 개설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